

## 2016년 흥이날철 학회장 인사말

### 12학번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제19대 흥이날철 철학과 학회장 이대섭입니다. 흥이날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일년을 활동했는데 흥이날철이란 슬로건을 한 이유는 한 해 동안 정말 흥이 나서 힘든 일도 슬픈 일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해 물론 힘든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정말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아쉬움이 남듯 저도 또한 그리고 철학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철학과 학우 분들도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기억하여 다음번에는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한해를 지내며 오리엔테이션부터 마지막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다들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준비하며 고생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한 만큼 재미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되며 흥이날철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철학과는 끝이 나지만 내년 2017년을 이끌어갈 Cheer up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2017년 대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한 해 동안 흥이나게 재미있게 보람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피아의 주제가 '추억'인만큼 2017년에는 저희 과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추억거리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2017년에 들어오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거리들 철학과에서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